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분석

사호석*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by Gazelle-firms

Hoseok Sa*

요약 :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젤형 기업의 지역별 고용창출 특성을 양적·질적 차원에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유형별 업종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은 지역별로 차별화 되고 있다. 둘째, 각 유형별로 업종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로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결과는 효과적인 가젤형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가젤형 기업,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력, 노동생산성

Abstract : Interest in gazelle-firms, which contribute to sustained job creation,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by gazelle-firms in terms of job quality as well as job quantity.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by industry for each type are compared.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are varied in terms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econd, it i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by industry for each type are different. Therefore, each type should have discriminative strategy. These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at gazelle-firms' policies should be tail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foster gazelle-firms more effectively.

Key Words : Gazelle-firms, Job creation, Regional economic vitality, Labor productivity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201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Industrial Lo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sahs@kicox.or.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이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로드맵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학계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안은경·이희연, 2015; 이금숙·박소현, 2019; 이동주 외, 2011). 하지만 신설 기업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이 낮아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재성, 2014; 신창호·김묵한, 2013; 이정현·이희연, 2017; 조덕희, 2014).

따라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Gazelle-firms)¹⁾이 각광받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가젤형 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통해 가젤형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가젤형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청은 2014년 「가젤형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립함으로써 2017년까지 500개의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젤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가젤형 기업 우대보증」제도 개시를 통해 가젤형 기업에 보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또한 가젤형 기업을 육성 및 발굴함으로써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지역단위에서 가젤형 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간 차별적인 가젤형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가젤형 기업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거시적으로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가젤형 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권오형 외, 2012; 박순홍·신현한, 2013; 이미순 외, 2015), 아직 지역 단위에서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역단위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을 양적·질적 차원에서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업종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간 이질적인 가젤형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지역 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원시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5년 주기로 제공되는 사업체들의 소재지, 산업구분, 창설연월, 종사자 수, 부가가치 등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이며, 전국 시·군·구를 공간 단위로 해당 기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단, 고용창출의 주체를 기업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의 취지와 다른 공공기관·학교·협회 및 단체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러 방법론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가젤형 기업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가젤형 기업 3,779개를 추출함으로써, 지역별로 5년 간 창출된 일자리의 특성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단지 지역에서 고용기회 증가폭이 높다고 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창출된 일자리의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단계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젤형 기업과 관련된 문헌 고찰을 통해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및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가젤형 기업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셋째,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차별적인 특성을 토대로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가젤형 기업 육성 방향을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 및 가젤형 기업의 정의

1) 선행연구 고찰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가젤형 기업의 규모·업력 등의 외적 특성 혹은 혁신·인적 자본 등의 내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가젤형 기업의 공간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가젤형 기업의 외적 특성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 및 업력을 고용이나 매출 측면에서의 기업성장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Moreno & Casillas(2007)는 기업규모를 가젤형 기업과 일반 기업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언급하며, 작은 기업 규모와 높은 성장률 간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Almus(2002)도 독일을 사례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업 성장률이 높다는 같은 결

과를 도출하였다.

기업 업력과 기업 성장 간 관계를 논의한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업력이 짧은 기업들의 혁신적인 성향을 근거로 들어, 기업 업력이 짧을수록 성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Daunfeldt *et al.*, 2010; Shane & Venkataraman, 2000). 하지만 기업 성장과 기업 업력은 큰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Almus, 2002; Moreno & Casillas, 2007).

가젤형 기업의 내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타 기업에 비해 많은 특허 보유건수와 높은 R&D 투자 비중을 근거로, 가젤형 기업의 혁신 능력이 높다고 분석하였다(권오형 외, 2012; 박순홍·신현한, 2013; 이미순 외, 2015; Schreyer, 2000). 인적자본 측면과 관련해서 이미순 외(2015)는 높은 인적자본 확보 수준이 가젤형 기업의 차별적인 특성이라는 결과를 검증하였다.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었다(서정대·김선화, 2011; 조덕희, 2014; Acs *et al.*, 2008; Deschryvere, 2008). Acs *et al.*(2008)는 2~3%의 고영향기업이 대부분의 순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성장의 상당부분에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Deschryvere(2008)는 5%에 불과한 고성장기업이 전체 고용창출의 약 90%를 발생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조덕희(2014)는 제조업 부문 기업데이터(KISVALUE)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체의 약 9.8%가 고용 성장의 31%에 기여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들은 일부 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 산업을 포괄하는 분석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서정대·김선화, 2011).

가젤형 기업의 공간 분포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젤형 기업이 지역 전반에 분포하고 있다고 밝힌 연구와(Acs *et al.*, 2008; Schreyer, 2000), 가젤형 기업의 도시권 분포 비중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Stam, 2005; Storey,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고용의 양적 측면에 주로 주목한 것과는 달리, 공간적 차원에서 전 산업을 대상으로 가젤형 기업의 양적·질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고용창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을 산업적 특성과 결부지어 살펴봄으로써, 고용창출과 산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가젤형 기업의 개념 및 정의

(1) 가젤형 기업의 개념

가젤형 기업은 우수한 고용창출 능력을 지닌 고성장기업을 지칭하는 용어이다(Acs & Muller,

2008; Ahmad, 2006; Autio *et al.*, 2000). 가젤형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아직 통일된 정의는 없다(Henrekson & Johansson, 2010). 각각의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해당 연구의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젤형 기업을 정의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가젤형 기업의 정의를 이루는 구성요소들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Birch, 1987; Delmar *et al.*, 2003; Deschryvere, 2008; Henrekson & Johansson, 2010).

가젤형 기업을 정의하는데 고려해야 할 측면은 ① 성장 지표, ② 성장 측정방식, ③ 성장 측정기

표 1. 가젤형 기업의 정의 및 내용

연구자	명칭	정의 및 내용
Birch & Medoff (1994)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기준 연도의 매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며, 매출액이 4년 간 20% 이상 성장한 기업 기업규모보다는 높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젤형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우선 기준으로 제시
Storey (1996)	Ten perc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매출액이 5백만~1억 파운드이고, 매출액이 4년 간 매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가운데 가젤형 기업이 많이 존재
Autio <i>et al.</i> (2000)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3년 연속 매출액이 최소 50% 이상 증가하면서 최종 연도의 매출액이 FIM 1 million 이상인 기업 가젤형 기업은 초기 연도 대비 최종 연도의 총 고용이 약 400% 이상 증가
Schreyer (2000, OECD) France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성장하는 기업들 가운데 상위 10%에 속한 기업 고성장 기업은 고용 성장에 상당한 역할
Ahmad (2006, OECD)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초기연도의 고용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3년 연속 종사자 수가 연평균 20% 성장한 기업 가운데, 업력이 5년 이하인 기업 기업 업력을 가젤형 기업과 고성장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
Deschryvere (2008)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초기연도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종사자 수가 3년 연속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순 일자리보다 고성장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 창출
Acs & Muller (2008)	Gazel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초기연도의 종사자 수가 20~499명인 기업들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규모가 큰 지역, 대도시권 지역에 입지한 가젤형 기업은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달성
NESTA (2009)	High-growth fi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퍼센트의 기업 고성장 기업을 고용,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를 토대로 9가지 정의로 구분하여 제시

출처: Henrekson & Johansson(2010)를 참조함

간 혹은 주기로 구분할 수 있다(Henrekson & Johansson, 2010).

먼저, 지표의 경우 고용·매출액·부가가치·생산성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Delmar(1997)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 지표를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매출액 등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업성장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측정 가능한데, 첫째, 고용자 수 증가를 파악하는 ‘절대적 척도’, 둘째, 고용 증가율로 측정하는 ‘상대적 척도’, 셋째, 종사자 수의 최소치를 정한 후, 그 이상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복합적 척도’, 마지막으로 ‘고용성장지수(Employment Growth Index)’ 등의 합성지수가 있다. 기업성장 측정 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Almus, 2002), 서로 보완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거나 고용성장지수와 같이 여러 지표를 결합시켜 만든 합성지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Delmar et al., 2003).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은 고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고용창출 정도 대비 고용성장률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사자 수 10인이라는 한계치를 설정하고 있다(Ahmad, 2006; Deschryvere, 2008). 아직 한계치로 활용되는 수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10이라는 기준은 많은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고용성장지수’는 절대적 척도(종사자 수의 변화)와 상대적 척도(고용률의 변화)의 곱에 의해 측정하는 Birch(1987)가 고안한 척도이다.²⁾

마지막으로 성장 측정기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장 측정기간에 따른 분석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Henrekson & Johansson, 2010).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며, 데이터의 가용여부가 분석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가젤형 기업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젤형 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① 지표, ② 성장측정방식, ③ 측정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창업기업 가운데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업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고용’ 지표를 토대로 기업의 성장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의 성장측정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따른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은 배제하고자 하였다. 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의 절대적 성장과 상대적 성장이 모두 반영되는 Birch(1987)의 고용성장지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고용인원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Birch Index가 높게 계산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서정대·김선화, 2011; Deschryvere, 2008) 종사자 수 10인이라는 기준을 최소 한계치로 설정하였다. 이는 고용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춘 기업을 추출하고자 한 판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가용성을 토대로 측정 기

표 2. 가젤형 기업의 정의 구성요소

기준	구성요소
지표	· 고용, 매출액, 이익, 시장점유율, 총 자산가치 등
측정 방식	· 고용자수(절대적 척도) · 고용증가율(상대적 척도) · 고용자수 한계치 설정, 고용증가율(복합적 척도) · 고용성장지수(합성지수)
측정 기간	· 매년 연속(예: 3년 연속 증가, 5년 연속 증가) · 최종연도와 초기연도 간 차이(예: 4년간, 5년간)

출처: Delmar(1997)를 참조함

간을 설정하였다. 「경제총조사」 데이터의 2010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최근 5년 간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위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기업의 고용성장을 측정하였다. 단, ‘고용계약을 체결한 임금근로자’를 본 연구에서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를 합한 수치로 계산하였다.

가젤형 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Birch Index 분포 구조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Birch Index의 경우, 변량의 범위가 넓는데 반해, 도수들이 특정 구간에 밀집해 있어 가시적으로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Birch Index를 자연로그로 변환시킨 후, 분석기간 내 고용인원이 증가한 27,367개 사업체의 분포 패턴을 살펴보았다.

순위규모법칙에 기초한 자연로그 변환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ln BI 0에서 4미만인 구간에 상당수의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는 반면, 4에서 12미만인 구간에는 일부 기업만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ln 4이상 12미만의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사업체 약 3,700개가, 0 이상 4미만인 구간에는 약 23,000개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ln BI 4를 변곡점으로 하여, 성장정도가 상이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ln BI 4이상의 구간에 분포한 3,779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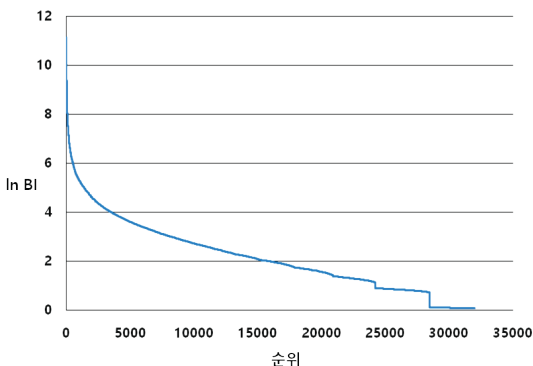


그림 1. 순위규모법칙에 기초한 분포곡선

사업체를 고성장기업으로 판단하고 가젤형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가젤형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성장기업(27,367개 사업체) 가운데 상위 14%를 차지한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가젤형 기업을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 간 Birch Index로 계산한 고용창출 기여도가 성장기업 내 상위 약 10%에 속한 기업’으로 일반화하였다.

3.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분포 및 고용창출 비교

1)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

가젤형 기업 전체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전체 사업체의 6.5%가 입지하고 있으며, 영등포구(3.6%), 서초구(3.0%), 안산시(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젤형 기업이 분포하는 198개 지역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면,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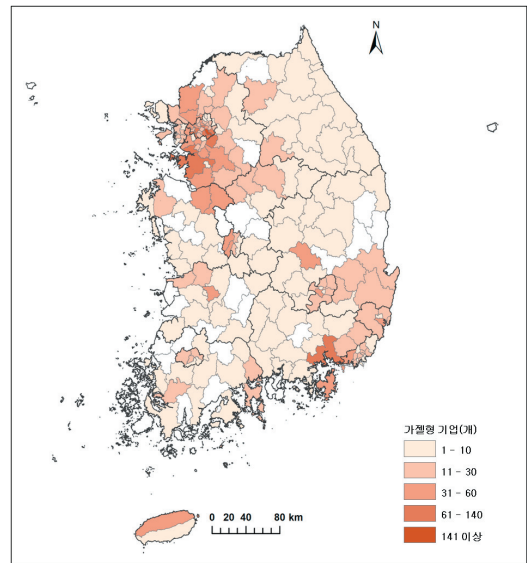


그림 2. 가젤형 기업의 지역별 분포 패턴

시·구미시·울산 남구·천안시를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젤형 기업 전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55.2%로 매우 밀집된 불균형적인 공간패턴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동남권, 대경권이 15.2%,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지역차원의 고용창출 특성 분석

(1) 일자리 양과 질 측정지표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 특성을 분석기간 동안의 변화에 주목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양적 특성의 경우, '고용창출률'과 '고용자 수 증가'를 곱하여 계산한 합성지수로 고용기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절대적 양의 개념 혹은 변동률 개념의 경우, 지역의 고용규모에 따라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합성지수를 활용하였다. 한편, '고용창출률'은 분석기간 동안 늘어난 일자리 양을 분석 초기시점의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분석 초기시점과 분석 최종시점의 고용인원 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해당 방식은 일자리 증가량을 단순히 분석 초기시점의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분석 최종시점에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의 일자리 변동률이 무한대 혹은 -1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윤윤규·고영우, 2009; 홍현균, 2004).

고용창출의 질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 UNECE의 'Quality of Employment'등의 개념을 기초로 한다(김영민, 2014).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질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가운데 지역경제 활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생산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고용의 양이 늘어나도 생산성 향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차상미(2015)의 연구를 토대로 분석기간 동안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2015년의 1인당 부가가치가 2010년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를 계산하여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지역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지역별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고 있지만, 2010년 마이너스 수치에서 2015년 플러스로 바뀌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화율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차상미, 2015),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³⁾

표 3. 고용창출 특성 측정지표

구분	지표명	측정항목	측정방법
양적 측면	고용 기회	고용창출률 x 고용자 수 증가량	$\bullet \left(\frac{\text{종사자 수 증가량}}{(\text{2010년 종사자 수} + \text{2015년 종사자 수}) \div 2} \right) \times \text{종사자 수 증가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를 제외하고 종사자 수를 계산함
질적 측면	노동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인당 부가가치-2010년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영업이익+노동소득+감가상각비+임차료+세금과 공과 •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 수

주: 종사자 수 증가량은 2010년 대비 2015년의 고용인원 증가량을 의미함
 고용창출률 계산 방식은 윤윤규·고영우(2009)의 연구를 참조함
 부가가치 계산 방식은 차상미(2015)의 연구를 참조함

(2) 고용창출의 양적·질적 측면 비교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기회'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과 기술집약적 업종으로 분류되는 지식기반 제조업체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경기도(김명진·이지훈, 2016), 그리고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동남권과 대경권의 대도시에서 주로 고용기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에서 고용기회가 집중적으로 늘어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이며, 지식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구·서

초구·영등포구 등과(박소현·이금숙, 2016) 첨단산업의 분포비중이 높은 수원시의 고용기회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체로 지역노동시장 규모가 작은 군부의 고용기회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하동군·옥천군·함양군 순으로 낮았다.

지역 간 가젤형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 또한 격차가 컸는데, 이는 지역별로 고용창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이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정책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발달했던 경부축에 위치한 도시들이 대체로 1인당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평택시·공주시·영암

표 4. 지역 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비교

(단위: 명, 백만원)

순위	지역	일자리양			지역	일자리질			
		종사자수 증가	고용 창출률	고용 증가지수		1인당 부가가치 (2010)	1인당 부가가치 (2015)	1인당 부가가치변화	
상위 10위	1	강남구	31,834	0.632	20,124	평택시	-2.4	327.7	330.1
	2	수원시	21,510	0.920	19,790	공주시	55.1	370.8	315.7
	3	서초구	21,908	0.732	16,030	영암군	-71.1	95.4	166.5
	4	영등포구	24,015	0.586	14,069	논산시	44.8	172.0	127.1
	5	서울중구	17,539	0.637	11,173	파주시	247.0	368.7	121.7
	6	송파구	11,007	0.826	9,088	옥천군	-72.0	49.0	121.0
	7	파주시	11,077	0.699	7,743	고흥군	32.5	135.5	103.0
	8	금천구	10,204	0.730	7,451	오산시	160.8	261.8	101.0
	9	구로구	7,582	0.874	6,629	대전동구	66.9	167.3	100.4
	10	마포구	8,705	0.728	6,336	부산강서구	90.7	186.2	95.4
하위 10위	190	남원시	31	0.785	24	강남구	339.7	101.0	-238.7
	191	부여군	35	0.619	22	남원시	258.5	18.9	-239.5
	192	창녕군	39	0.553	22	하남시	305.7	41.3	-264.5
	193	무주군	31	0.681	21	용산구	372.4	77.4	-295.9
	194	인제군	21	0.977	21	남양주시	374.5	45.2	-329.3
	195	괴산군	25	0.820	20	중량구	450.8	84.0	-366.7
	196	화순군	25	0.769	19	강동구	543.6	99.6	-444.0
	197	함양군	36	0.486	18	도봉구	523.8	38.2	-485.6
	198	옥천군	32	0.542	17	여주시	1130.2	524.9	-605.4
199	하동군	67	0.221	15	무안군	954.4	85.0	-869.3	

주: 고용증가지수는 고용창출률×종사자 수 증가량을 곱한 합성지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이 발달한 강남구·용산구 등의 1인당 부가가치 감소가 눈에 띄었다. 위 지역들의 서비스업 부문 업종별 부가가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금융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의 1인당 부가가치가 향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소매업, 운수업으로 대표되는 전통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감소폭이 매우 컸다. 즉, 해당 지역들의 1인당 부가가치 감소는 도·소매업 등의 노동생산성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젤형 기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단지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업종을 육성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유형 구분 및 특성

1) 고용창출 특성의 유형 구분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을 양적·질적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에 기초하여, 가젤형 기업이 분포해 있는 전국 시·군·구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단위가 다른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의 분석 값을 선형표준화방법을 기초로 표준화시킨 후, 각각의 중위 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중위 값 이상인 유형 1에는 종로구·과천시·평택시·안산시 등이 속했으며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가젤형 기업 가운데 지식기반 업종으로 분류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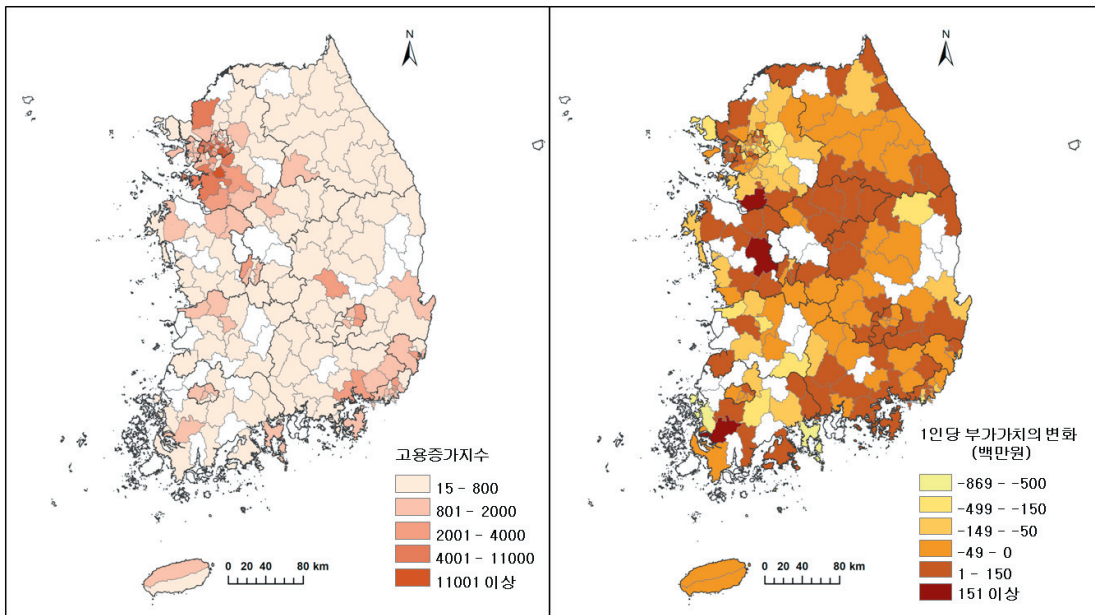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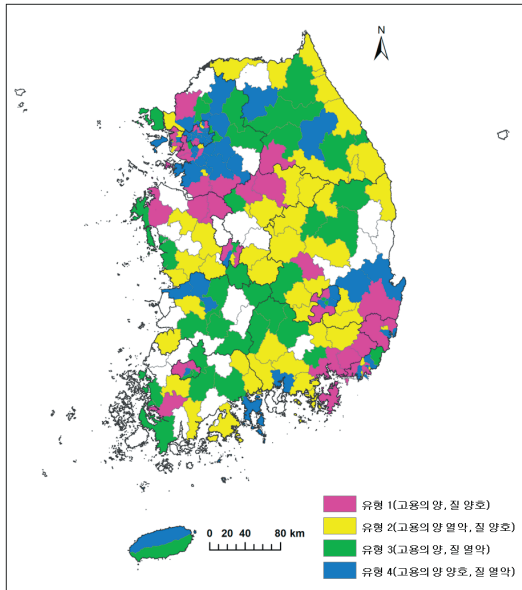


그림 4.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유형별 공간분포

된다.

고용의 양적 수준은 저조하나, 질적 수준은 우세한 유형 2에 속한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통영시·진주시·경산시·공주시 등이 있으며 동남권·대경권·충청권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업종이지만 고용성장은 크지 않은 제조업이 분포하거나 해당 지역 내 서비스 업종들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 중위 값보다 작은 유형 3에 속한 지역들은 무안군·무주군·인제군·횡성군 등이며, 호남권과 강원도 및 강원도에 인접한 경기도 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 대비 지역산업 발전수준이 미흡하여, 전반적인 고용창출 특성이 열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은 저조하나, 고용의 양적 수준이 우세한 유형 4에는 강남구·서초구·용산구·수원시·용인시 등이 포함되며, 주로 서울과 경기도 내 지역들의 분포 비중이 높았다. 이는

고용성장수준은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전통서비스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파악되었다.

2) 유형별 업종 특성 분석

먼저, 유형별 산업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전반적인 유형 간 산업 분포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젤형 기업 전체의 85%에 육박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하여(사호석, 2018),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주목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유형 1의 제조업 비중은 43.6%로 가젤형 기업 전체의 제조업 비중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7.9%), 운수업(7.7%), 사업지원서비스(7.3%)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형 2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21.7%)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제조업에 속한 가젤형 기업은 해당 유형 내에서 25.6%를 차지했고, 그 밖에 운수업(6.7%)·사업지원서비스업(6.7%)의 비중이 컸다. 유형 3의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형 2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17.0%), 도·소매업(9.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 4의 경우에는 타 유형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13.9%)은 현저히 낮은 반면, 사업지원서비스(11.3%)·전문과학기술서비스(9.3%)·출판영상통신업(7.9%) 등 지식기반업종의 비중이 높았고, 도·소매업의 비중(12.7%) 또한 높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 특성과 산업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유형별 업종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 속한 사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제외함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유형별 특화산업 추출을 위해서는, 특정업종의

표 5.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유형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비교

구분	전체	유형1 (고용의 양 우수, 질 우수)	유형2 (고용의 양 열악, 질 우수)	유형3 (고용의 양 열악, 질 열악)	유형4 (고용의 양 우수, 질 열악)
제조업	25.6%	43.6%	25.6%	27.1%	13.9%
도·소매업	9.3%	4.8%	4.3%	9.6%	12.7%
운수업	6.9%	7.7%	6.7%	4.3%	6.6%
숙박·음식점업	1.7%	1.1%	2.4%	4.3%	1.8%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7%	4.0%	0.4%	1.6%	7.9%
금융·보험업	3.1%	1.5%	2.8%	3.7%	4.1%
부동산 및 임대업	1.4%	1.8%	0.4%	0.5%	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4%	6.0%	2.8%	2.1%	9.3%
사업지원서비스	9.3%	7.3%	6.7%	5.9%	11.3%
교육서비스	1.4%	1.4%	1.6%	0.5%	1.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9.2%	7.9%	21.7%	17.0%	7.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1.2%	0.8%	0.8%	4.3%	1.2%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1.8%	1.2%	3.9%	2.1%	1.9%
가젤형 기업 개수	3,779개	1,305개	254개	188개	2,032개

주: 표준산업분류의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함
유형별 전체 가젤형 기업 개수 대비 산업별 비중을 명시함

상대적 특화도와 지역 내 업종 비중을 모두 고려하는 지표인 상대집중계수(NOHI 지수)를 활용하였다(남기성 외, 2008).⁵⁾ NOHI 지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NOHI_{ij} = \left(\frac{n_{ij} - E_{ij}}{n_{ij}} \right) \times \left(\frac{n_{ij}}{n_i} \right) \times 100 \quad (1)$$

$$E_{ij} = n \times p_i \times p_j \quad (\text{기대빈도}) \quad (2)$$

(단, n_{ij} : i 유형 내 j 업종의 고용창출량, n_i : i 유형의 고용창출량, p_i : 전체 대비 i 유형의 비중, p_j : 전체 대비 j 업종의 비중)

해당 지수는 0보다 클 경우, 상대적으로 특화된 것을 의미하며(남기성 외, 2008), NOHI 지수가 0보다 큰 산업은 해당 유형 내 특화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산업 특화도의 최소 기준인 전체 고용자 수 대비

0.2%를 적용하여(이동희·박지혜, 2013), 유형별 전체 종사자 수 가운데 해당 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이 0.2% 이상인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고용창출 특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유형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들의 경우 양적·질적 차원에서 우수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 특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분류된 유형 1에 속한 지역들은 대체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차로 대표되는 주력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기회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화학제품 등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이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용의 양·질이 우수하다고 나타난 전자부품·통신장비, 자동차 등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자부품·통신장비는 파주시와 평택시에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이 입지하면서 양질의 일자

표 6.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유형별 업종 특성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산업분류	고용증가지수	산업분류	1인당 부가가치 변화
유형1 (고용의 양, 질 우수)	전자부품, 통신장비	9,114	보험 및 연금업	394
	사업지원서비스	8,086	전자부품, 통신장비	192
	육상운송	5,506	화학물질, 화학제품	136
	자동차	4,773	기타 운송장비	98
	연구개발	3,552	자동차	93
	유형 1 전체	78,621	유형 1 전체	43
유형2 (고용의 양 열악, 질 우수)	사회복지서비스	242	창고 및 운송서비스	278
	보건업	189	비금속광물 광업	237
	식료품	184	전자부품	203
	사업지원서비스	184	기타 기계 및 장비	165
	육상운송	149	전기장비	152
	유형 2 전체	7,246	유형 2 전체	11
유형3 (고용의 양, 질 열악)	사회복지서비스	256	종이제품	191
	사업지원서비스	202	전자부품	65
	보건업	183	기타 기계 및 장비	56
	육상운송	124	보험 및 연금업	47
	자동차	120	기타 제품	36
	유형 3 전체	7,552	유형 3 전체	-60
유형4 (고용의 양 우수, 질 열악)	사업지원서비스	6,066	보험업	153
	연구개발	3,87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34
	도매 및 상품중개	2,9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50
	전문서비스	2,246	의복, 액세서리	33
	금융업	1,798	정보서비스	30
	유형 4 전체	174,233	유형 4 전체	-114

주: 고용증가지수는 고용창출률×종사자 수 증가량을 곱한 합성지수

고용창출의 양적·질적 차원에서 상위 5위 업종을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고용증가지수, 1인당 부가가치 변화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리가 창출되고 그 연계 사업체들이 많이 입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서산시와 평택항을 축으로 여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집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풀이된다.

고용창출의 양적 측면은 열악한 반면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형 2의 경우, 전체적인 고

용기회 증가폭이 낮았으며, 창고 및 운송서비스, 비금속광물 광업, 전자부품 등의 생산성 향상이 돋보였다. 하지만 위 업종들이 유형 2에서 차지하는 종사자 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의 지역들은 해당 유형 내에서 고용창출 기여도가 상위에서 속한 사회복지서비스·보건업·식료품 등의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고용의 질이 우수한 업종의 특화도는 낮았다. 이는 유형 2

표 7.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유형별 상위 5위 특화 산업 비교

구분	특화업종(NOHI 지수)
유형 1 (고용의 양, 질 우수)	전자부품·통신장비(8.30), 자동차(3.50), 금속가공제품(2.4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90), 기타 기계 및 장비(1.80)
유형 2 (고용의 양 열악, 질 우수)	보건업(12.62), 식료품(4.75), 사회복지서비스(3.28), 비금속광물제품(1.73), 육상운송(1.64)
유형 3 (고용의 양, 질 열악)	보건업(6.87), 숙박업(5.87), 사회복지서비스(4.64), 금속가공제품(3.66), 식료품(3.26)
유형 4 (고용의 양 우수, 질 열악)	사업지원서비스(1.82), 금융업(1.59), 도매 및 상품중개(1.59), 연구개발(1.56), 전문서비스(0.95)

에 속한 지역들의 고용창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젤 산업 군을 집중 육성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성장기여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형 2는 고령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국에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업종의 일자리 창출 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해석되며, 보건업은 부산 서구·대전 중구·강릉시 등에 대학 병원 혹은 대형 종합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고용창출 특성이 열악한 유형 3에 속한 지역 내 분포해 있는 업종들의 전체적인 고용 기회 증가 수준은 낮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 3의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다른 유형에서 고용창출 특성이 양적 혹은 질적으로 우수한 업종이 해당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유형 2의 일부 업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만약 유형 간 업종 차이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고용창출의 특성은 업종에 의해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같이 특정 지역 내에서 양적·질적 수준이 우수한 업종들이 다른 유형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 보다 지역의 입지적

여건 및 특성이 고용창출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유형 3에 속하는 지역들의 경우, 전반적인 입지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선행된 후, 가젤형 기업 발굴 및 육성 정책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고용기회는 많이 증가한 반면 고용의 질적 변화는 열악한 유형 4의 지역들은 사업지원서비스·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성장이 돋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위 업종들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적 차원에서는 금융·보험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형 4에 속한 지역들에 많이 분포하는 도·소매업의 생산성 악화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여,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형 4의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통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중심업무지구로서 많은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기능적 연계가 용이한 영등포구·강남구·서초구의 고용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융·보험 업종들은 금융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업체들이 군집되어 있는 서울 중구·영등포구·강남구 등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개발의 경우 삼성전자 연구 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연구단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수원시와 현대 그룹의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용인시의 고용 성장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고용창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신설 기업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형 창업의 일자리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고용창출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고용 성장에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도 지역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 간 이질적인 가젤형 기업의 특성을 파악한 실증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의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을 양적·질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효과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기회는 서비스 업종이 많이 분포해 있는 서울과 지식기반 제조업종이 발달한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으며, 노동 생산성은 대체로 경부축에 위치한 제조업에 특화된 도시에서 크게 증가한 가운데,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격차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역별로 고용창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고 해석가능하다.

둘째, 지역별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가젤형 기업이 분포해 있는 지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용의 양·질이 모두 우수한 유형 1은 지식기반 업종으로 분류되

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분포해 있는 수도권과 동남권의 비중이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우세한 유형 2의 경우, 고부가가치 업종이지만 고용성장은 크지 않은 제조업이 발달한 동남권·대경권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전반적인 특성이 열악한 유형 3에 속한 지역들은 지역산업 발전수준이 다소 낮은 호남권·강원권에 많이 분포하며, 고용의 양적 측면이 우세한 유형 4는 고용성장수준은 높지만 생산성이 다소 낮은 전통서비스업종이 많이 분포해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분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유형별 업종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 특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유형 1의 지역들은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차 등의 주력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 성장이 돋보였으며, 주력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용의 양·질이 우수하다고 분석된 업종들에 대체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양적 측면은 저조하지만 질적 측면은 우수한 유형 2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가운데, 창고 및 운송서비스·비금속광물 광업·전자부품 순으로 1인당 부가가치 증가폭이 높았다. 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업종의 특화도는 낮고 유형 2 내에서 고용창출 기여도가 상위에 속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전반적인 특성이 열악한 유형 3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용 기회의 증가폭이 낮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의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다른 유형에서 양적 성장 혹은 질적 향상에 기여한 업종이 유형 3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특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양적 측면이 우세한 유형 4의 경우,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전반적으로 위 업종들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질적 차원에서 금융·보험 업종의 1인

당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이 극감해 전체적으로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젤형 기업을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별로 가젤형 기업을 육성할 때,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젤형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역 간 1인당 부가가치 변화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지역의 양적·질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가젤형 기업 육성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별 유형화에 따른 가젤형 기업 육성 방향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고용창출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지역의 고용창출뿐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젤형 기업의 전반적인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창출 특성 유형별로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이 우수한 유형 1을 제외하고, 유형 2·3·4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유형 2는 전체적인 고용기회 증가폭이 낮고, 질적으로 우수한 고용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유형 2에 속한 지역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 군을 육성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업종을 확대 지원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형 3은 전반적인 고용기회 증가 수준 및 노동생산성 향상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다른 유형에서 고용창출 특성이 양적 혹은

질적으로 우수한 업종이 유형 3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이는 유형 3에 속한 지역들은 다른 지역 대비 입지적 여건 및 특성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형 3에 속한 지역들의 경우,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산업입지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형 4는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업종들에 특화되어 있으며, 금융·보험 업종을 중심으로 1인당 부가가치 증가폭이 큰 반면에, 도·소매업 등의 1인당 부가가치 감소폭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유형 4의 지역들은 전반적인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역별로 가젤형 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경제총조사 DB」에서 제공하는 지역 및 산업정보를 토대로 사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코드나 사업체의 위치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분석 초기시점인 2010년에 존재하지 않은 세종시와, 분석 시점 사이에 행정구역 코드가 변화한 청주시 내 사업체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고용의 질적 측면을 ‘노동 생산성’ 한 가지 기준으로 일반화하였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 가젤형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질적 측면에 대한 데이터가 보완된다면, 가젤형 기업 육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1) 가젤이란 빠르게 달리면서 점프력 또한 좋은 영양류의 일

- 종을 말하며, 빠르게 성장하며 고용 창출효과 또한 뛰어난 기업의 모습이 가젤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가젤형 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 2) 고용성장지수(Employment Growth Index)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E=(X_t-X_0)\times(X_t/X_0)$$
- (X_t : 분석대상 최종년도의 고용자 수, X_0 : 분석대상 초기년도의 고용자 수)
- 3) 일부 시·군·구를 제외하고 가젤형 기업은 한 지역 내에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지역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의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2010년과 2015년의 1인당 부가가치가 마이너스 수치에서 플러스 수치로 변화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4) 선형표준화(Linear Scaling Methodology)의 식은 다음과 같다.
- $$z_{ij}=\frac{x_{ij}-\text{Min}(x_j)}{\text{Max}(x_j)-\text{Min}(x_j)}$$
- (단, z_{ij} : 표준화한 값, j : 세부 항목, x_{ij} : i 지역의 j 항목 값)
- 5)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LQ지수를 활용하지만, LQ지수는 지역 내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정 산업 비중을 반영함으로써, 타 지역 대비 특정산업의 특화 정도와 해당 산업의 비중을 모두 고려하는 남기성 외(2008)가 개발한 상대집중계수(NOHI지수)를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 권오형·문종범·김인섭, 2012, “수퍼 가젤형 기업의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pp.45-64.
- 김명진·이지훈, 2016, “경기도 사물인터넷 생태계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pp.18-32.
- 김영민, 2014,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 남기성·오민홍·홍현균, 2008, “기대빈도를 활용한 새로운 상대집중지수의 제안,” 응용통계연구 21(4), pp.581-588.
- 박소현·이금숙, 2016, “서울대도시권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 업종별 고용기회 예측,”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694-711.
- 박순홍·신현한, 2013, “가젤기업(Gazelles)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5(1), pp.1-24.
- 박재성, 2014,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중소기업연구원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14-18호, pp.1-24.
- 사호석, 2018, 가젤형 기업의 공간분포와 고용창출 역량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대·김선화, 2011,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 10%의 기업이 46%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소기업연구원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 9호, pp.1-21.
- 신창호·김목한, 2013,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36, pp.1-23.
- 안은경·이희연, 2015,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일자리 질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pp.168-189.
- 윤운규·고영우, 2009,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금숙·박소현, 2019, “업종별 창업 및 폐업의 지리적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pp.178-195.
- 이동주·이윤보·김중운, 2011,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2), pp.73-92.
- 이동희·박지혜, 2013, 국내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미순·서승원·주섭중, 2015, “가젤형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 간 역량 비교 연구,” 중소기업연구 37(3), pp.201-224.
- 이정현·이희연, 2017, “지식기반산업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2), pp.137-157.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조덕희, 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차상미, 2015, 2015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분석, 한국생산성본부.
- 홍현균, 2004,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위임, 한국의 고용구조,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pp.329-361.
- Acs, Z. and Muller, P., 2008, “Employment Effects of Business Dynamics: Mice, Gazelles and Eleph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85-100.
- Acs, Z., Parsons, W. and Tracy, S., 2008, *High-Impact Firms: Gazelles Revisited*, Washington, DC: SBA.
- Ahmad, N., 2006, *A Proposed Framework for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Paris: OECD.
- Almus, M., 2002, “What Characterizes a Fast-Growing Firm,” *Applied Economics* 34(12), pp.1497-1508.
- Autio, E., Arenius, P. and Wallenius, H., 2000, *Economic Impact of Gazelle Firms in Finland*,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 Birch, D., 1987,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New York: Free Press.
- Birch, D. and Medoff, J., 1994, Gazelles, in Solmon, L. and Levenson, A.(eds.), *Labor Markets, Employment Policy and Job Creation*, Boulder: Westview Press, pp.159-167.
- Daunfeldt, S., Elert, N. and Johansson, D., 2010,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High-Growth Firms: Do Definitions Matter?*, Stockholm: Ratio working papers.
- Delmar, F., 1997, Measuring growth: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Results, in Donckels, R. and Miettinen, A.(eds.), *Entrepreneurship and SME Research: On Its Way To the Next Millennium*, Aldershot: Ashgate, pp.199-216.
- Delmar, F., Davidsson, P. and Gartner, W., 2003, “Arriving at the High-Growth Fir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pp.189-216.
- Deschryvere, M., 2008, *High-Growth Firms and Job Creation in Finland*, Helsinki: ETLA.
- Henrekson, M. and Johansson, D., 2010, “Gazelles as Job Creators: a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35(2), pp.227-244.
- Moreno, A. and Casillas, J., 2007, “High-Growth SMEs Versus Non-High-Growth SMEs: a Discriminant Analysi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1), pp.69-88.
- NESTA, 2009, *The Vital 6 Percent: How High-Growth Innovative Business Generate Prosperity and Jobs*, London: NESTA.
- Schreyer, P., 2000, *High-growth Firms and Employment*, Paris: OECD.
- Shane, S. and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pp.217-226.
- Stam, E., 2005, “The Geography of Gazelles in the Netherland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6(1), pp.121-127.
- Storey, D., 1996, *The Ten Percenters - Fast Growing SMEs in Great Britain, First report*, London: Deloitte & Touch International.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10, 2015, 경제총조사(http://mdis.kostat.go.kr/extract/extSu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 (최종열람일: 2017년 12월 5일))
- 교신: 사호석,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이메일: sahs@kicox.or.kr
- Correspondence: Hoseok Sa, Industrial Lo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39 Cheomdan-no, Dong-gu, Daegu, 41068, Korea, e-mail: sahs@kicox.or.kr

최초투고일 2019년 6월 24일

수정일 2019년 7월 23일

최종접수일 2019년 8월 5일